

이상기후에 美 관세까지... 카카오·커피 원료제품 가격 인상

연말 식품물가 '초비상'

해태제과 홈런볼 1700원→1900원
10개 제품 가격 평균 8.6% 인상
롯데웰푸드 제품 17종 평균 12% ↑
동서식품 커피믹스 등 8.9% 올려

연말 식품 물가에 초비상이 걸렸다. 기후위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관세 정책이 식품업계를 뒤흔친 것이다.

3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주요 식품업체들은 최근 국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카카오, 커피 등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 가격을 인상했다.

해태제과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초콜릿 원료 비중이 높은 홈런볼과 포키, 오예스, 자유시간 등 10개 제품 가격을 평균 8.6% 인상했다. 2022년 5월 이후 2년6개월만이다.

홈런볼과 포키 소비자 가격은 1700원에서 1900원으로 각각 200원(11.8%) 올랐으며, 자유시간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0원(20%)인상했다. 오예스 가격도 6000원에서 6600원으로 10% 올랐다.

오리온도 13개 제품 가격을 평균 10.6% 올렸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초코



해태제과 등 제과업체는 1일부터 초콜릿 제품 가격을 평균 8.6% 인상했다.



서울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원두를 볶고 있다. /뉴스시스

송이와 비쇼비 가격은 20% 올랐다. 초콜릿 제품 투유의 경우 30% 이상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당분간 제품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롯데웰푸드는 지난 6월 빼빼로와 가나초콜릿 등 17종 초콜릿 과자 가격을 평균 12% 올렸다. 제과업체들은 초콜릿의 주원료인 카카오 가격이 치솟은데다 물류, 인건비가 오르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도 초콜릿의 주원료인 카카오의 국제 시세가 최근 2년간 네 배 이상 급등했다. 향후 카카오와 견과류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격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와 커피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이상 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

소가 꼽힌다. 세계 최대 카카오 생산국인 코트디부아르와 가나는 폭우와 전염병으로 생산량이 각각 20%, 35% 줄었으며, 커피 생산국인 베트남과 브라질은 가뭄과 폭우로 경작 및 수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원두 가격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비해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물량 확보에 나선 것도 원두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 보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동서식품은 지난달 15일 인스턴트커피와 믹스·음료 등의 제품 출고가를 평균 8.9% 올렸다. 맥심 모카골드(리필 500g)는 1만7450원에서 1만9110원으

로, 같은 브랜드 커피믹스(2.16kg)는 2만3700원에서 2만5950원으로 인상했다. 동서식품은 커피 음료인 맥심 티오피(275ml)와 맥스웰하우스(500ml) 가격도 각각 110원씩 높였다.

커피 프랜차이즈도 일찍이 가격을 인상했다. 지난 8월 스타벅스코리아는 커피 음료 그란데(473ml) 사이즈와 벤티(591ml) 사이즈 가격을 각각 300원, 600원씩 올렸다.

소비자들은 초콜릿과 커피 가격 상승이 또 다른 연쇄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국제 원두 가격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다른 식품 제조사와 커피·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업체도 시차를 두고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제과 제품에서 초코 함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스위스 기업 네슬레는 영국에서 초콜릿 함량을 기존 제품보다 3분의 1수준으로 낮춘 제품을 출시했고, 미국 기업 허쉬는 '킷캣'의 초코 코팅을 대폭 줄여 판매를 시작했다.

제과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와 커피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가격 안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카오 등 식품 원재료 값 인상에 따른 식품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식품 소재 업계를 대상으로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밝혔다. 내년 밀 구매 자금 지원 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카카오, 유지류 등 다른 식품 소재 분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품목별 지원 예산은 관련 부처 협의의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3% 안팎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제반 비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지원 소식은 반갑지만, 이번 지원을 통해 원가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아울렛, 연말결산 '클리어런스 워크'

아울렛 판매가에 최대 30% 추가할인
파주점 등 6곳서 '아이디' 최대 70%

롯데아울렛이 한 해를 총망라하는 '클리어런스 워크' 행사를 진행한다. 3일 밝혔다. 행사는 이달 6일부터 8까지다.

롯데아울렛에 따르면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상품군에 걸쳐 아울렛 판매가에 최대 3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타임', '마인', '시스템', '질스튜어트', '이자벨마랑' 등 총 300여 브랜드가 행사에 참여한다. 이외에도 '지방시', '발렌티노', '토리버치' 등 해외패션 브랜드가 참여해 이월상품을 최대 30~40% 추가 할인가로 제공한다.

아웃도어 브랜드 할인 행사도 준비됐다. '아이디'에서는 파주점을 포함한 6개 점에서 최대 70% 할인한 아우터와 특가 상품을 판매한다. '블랙야크'는 동부산점 등 4개 지점에서 2024년 가을 겨울 상품을 최대 30% 할인한다. 'K2'는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 전경. /롯데아울렛

의왕점 등 4개 지점에서 이월상품 추가 10% 할인 행사와 더불어 최대 70% 할인된 품목을 선보인다.

아웃도어 브랜드 상품에 이어 특가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네과'는 파주점을 포함한 3개 점포에서 '에션셜 롱다운 자켓' 최대 70% 할인한 특가로 제공한다. 광고점과 동부산점 '노스페이스'에

서는 '리버톤 온볼 자켓 그린' 등 특가 상품을 한정 수량으로 선보인다.

롯데아울렛은 상품권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당일 상품권 행사 참여 단일브랜드에서 6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7% 상당의 롯데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쿠팡, 반려동물 용품 최대 70% 펫페어

오는 14일까지... 100여 브랜드 참여

쿠팡이 연말을 맞아 대규모 반려동물 용품 할인 행사 '펫페어'를 이달 14일까지 진행한다. 3일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2024 라스트 메가 세일 펫페어'에서 사료, 영양제, 간식, 모래와 배변패드 등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행사에는 뉴질랜드 프리미엄 펫푸드 '지위픽',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 '벨버드' 등 총 100여 브랜드가 참여한다.

특히 '더독 닥터소프트 시니어 사료', '사조 러브잇 고양이 캔', '포우장 벤토나이트 모래' 등을 이달 7일까지 할인가에 제공한다. 8일부터 14일까지는

'ANF 식스프리 캣 어덜트 사료', '하림 펫푸드 밥이보약 관절 사료', '쉬즈곤 벤토나이트 모래' 등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특별 테마관도 마련됐다. '고객만족 리뷰 추천템'에서는 높은 평점을 받은 검증된 상품을, '최대 70% OFF'에서는 기간 한정 할인되는 다양한 상품이 준비됐다. '펫 투게더'에서는 인기 브랜드의 대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안재선 기자

CJ제일제당-위글위글, 한정판 굿즈 출시

리유저블 쇼퍼백·파티컵 등 4종

CJ제일제당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위글위글'과 컬래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3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연말을 맞아 기획된 이번 '비비고x위글위글 홀리데이 페스타'를 통해 다양한 이커머스 채널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비비고' 로고 및 브랜드 슬로건 'Live Delicious'와 '위글위글'의 대표 IP '위글베어'를 활용한 한정판 굿즈 4종(리유저블 쇼퍼백·파티컵, 오너먼트 키링, 펄프 수세미)을 증정한다.

우선 CJ제일제당 공식몰 'CJ더마켓'에서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대규모 특가 프로모션 '더세페(더마켓 세일 페스타)'에서는 올해 가장 사랑받은 CJ제일제당 대표 제품 구매 시 한정판 굿즈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비비고 만두세트



CJ제일제당이 위글위글과 콜라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CJ제일제당

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리유저블 쇼퍼백을 증정하며, 고메 소바바치킨 세트는 오너먼트 키링, 비비고 분식 세트는 리유저블 파티컵을 각각 제공한다.

또한 '더세페' 기간 전 제품을 최대 8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추가로 최대 15% 중복 할인이 가능한 쿠폰도 제공돼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CJ제일제당 인기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홈플러스, 배민과 손잡고 '마트직송'

당일배송·예약배송 가능

홈플러스는 지난 2일, 예약배송이 가능한 대형마트 서비스인 '마트직송'을 배달의민족 장보기·쇼핑에 최초로 입점시키고 온라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입점한 홈플러스의 '마트직송' 서비스는 전국 대형마트 매장의 상품을 고객의 집 앞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다. 당일 배송은 물론, 고객이 원하는 날짜나 시간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는 맞춤형 배송이 특징이다.

배송 품목도 확대됐다.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식품뿐만 아니라 리빙·스포츠 용품, 완구, 가전, 의류 등 비식품도 배달의민족 장보기·쇼핑 서비스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의 제휴 확대는 고객 접점을 다각화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배달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홈플러스 온라인 서비스를 경험할 기회를 늘리고,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는 게 홈플러스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